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 미 증시, 6월 FOMC 부담 소화, 반도체주 랠리 지속 등으로 강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8일(목) 미국 증시는 6월 FOMC 여진에도, 미-이란 종전 후속 협상 진행, 정부 주도의 애플(+0.7%)과 인텔(+10.6%) 협력 발표 및 메모리 가격 강세 등에 힘입은 마이크론(+8.7%) 등 반도체주 랠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발 테크주 수급 쏠림 등으로 상승 마감(다우 +0.1%, S&P500 +1.1%, 나스닥 +1.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4%).

전일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 반면, 미 10년물 금리 하락, 미국 주식시장 상승 등을 미루어 보아, 직전일에 치러졌던 6월 FOMC 결과를 놓고 외환, 채권, 주식시장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 Fed Watch상 올해 9월 FOMC 1회 인상, 내년 1월 FOMC 1회 추가 인상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됐지만, 주요 글로벌 IB들 대부분이 연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등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시장은 신임 의장 체제하에서 달라지게 되는 연준의 정책 변화를 놓고 빈번하게 베팅 및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제시했던 근본 배경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이런 측면에서 월 평균 WTI가 5월 98달러대에서 6월 86달러대로 평균 가격 밴드가 다운됐으며, 19일 현재 75달러 내외로 추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를 감안 시, 추후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 확대 -> 미국 시장금리 급등 -> 증시 조정 국면 돌입”의 시나리오에 낮은 확률을 부여하고 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매파적인 6월 FOMC 결과 속 달러/원 환율 부담 등으로 장 초반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도 업종 vs 여타 업종간 양극화 장세가 전개되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 9,000pt 돌파, 코스닥은 1,000pt선을 위협받은 채로 마감(코스피 +2.3%, 코스닥 -3.0%).

금일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급등, 코스피200 야간선물 3%대 강세 등에 힘입어 전일에 이어 반도체 독주 색깔의 상승세로 출발할 전망. 장중에는 코스피 9,000pt 돌파하며 앞자리가 바뀐 데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단기 폭등에 따른 속도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추가 상승 탄력은 제한된 채 업종 순환매 장세로 전환할 전망.

6월 8일 코스피가 월 저점(7,484pt) 확인 후 반등 과정에서 반도체(+MLCC 등 IT 하드웨어) 쏠림현상 완화 및 업종 키 맞추기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일에는 시장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도주 내 대장주 3개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재차 심화됐기 때문. 코스피가 9,000pt를 돌파했음에도, 이들 주식의 비중이 낮거나, 코스닥 비중이 높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대급 랠리를 선뜻 체감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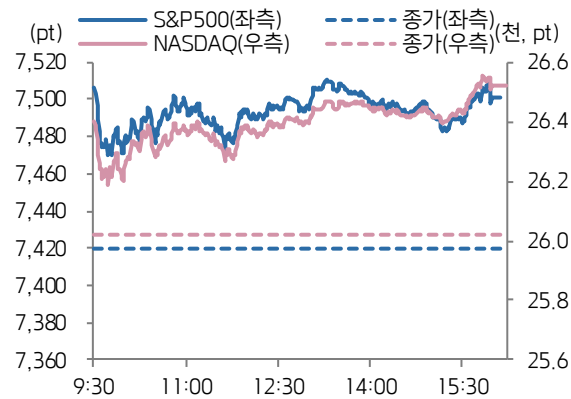
물론 5월 중순, 6월 초 조정 국면에서도 상기 주도주들의 주가 회복력이 강하다는 걸 입증하기는 했음. “외부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마다, 주도주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승률 높은 전략”이라는 공감대가 전일과 같은 소수업종 FOMO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 4거래일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던 외국인들이 전일 재차 1.3조원대 순매수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0.7조원), IT 하드웨어(+0.4조원)를 집중 매수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초 이후 코스피 실적 증가분의 약 97%를 반도체가 기여 중이라는 점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반도체 등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에 타당성을 부여(참고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 코스피 시가총액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약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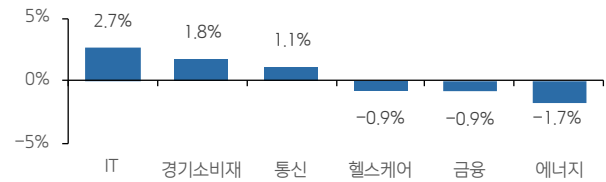
다만, 이번주(월~목) 코스피의 +11.6% 급등은 반도체(+18.0%), IT 하드웨어(+24.1%) 두 업종의 독주가 만들어냈으며, 이 같은 폭등 과정에서 피로감 및 차익실현 욕구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시점. 단기 전술 차원에서 상기 업종에서 일시적인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시나리오도 대응 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 이를 고려 시, 전일 낙폭 과도했던 조선, 방산, 증권, 전력기기, 바이오(+코스닥) 등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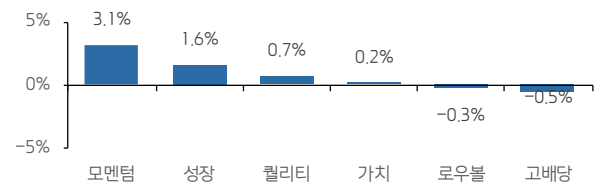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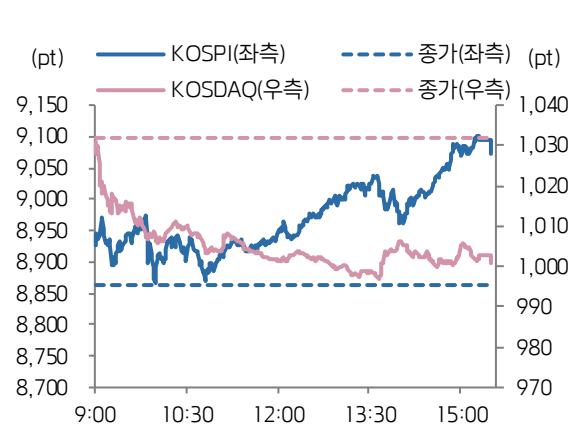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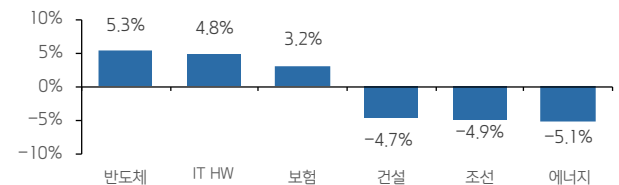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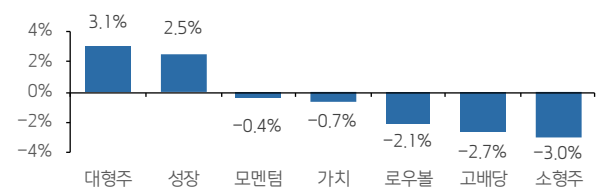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8.01	+0.7%	+9.62%	GM	79.29	-0.36%	-2.5%
마이크로소프트	379.40	+0.13%	-21.55%	일라이릴리	1,098.57	-1.21%	+2.22%
알파벳	368.03	+1.17%	+17.58%	월마트	117.18	-0.8%	+5.18%
메타	577.22	+1.7%	-12.55%	JP모건	325.22	-2.47%	+0.93%
아마존	244.39	+2.9%	+5.88%	엑손모빌	137.81	-2.08%	+14.52%
테슬라	400.49	+1.04%	-10.95%	세브론	173.63	-2.22%	+13.92%
엔비디아	210.69	+2.95%	+12.97%	제너럴일렉트릭	117.18	-0.8%	+5.2%
브로드컴	411.35	+4.7%	+18.85%	캐터필러	985.82	+3.13%	+72.08%
AMD	537.37	+4.86%	+150.92%	보잉	222.72	-1.29%	+2.58%
마이크론	1,133.99	+8.7%	+297.32%	넥스트에라	86.75	+1.2%	+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9,063.84	+2.25%	+115.08%	USD/KRW	1,540.00	+1.62%	+6.98%
코스피200	1,459.23	+2.98%	+140.8%	달러 지수	100.79	+0.7%	+2.51%
코스닥	1,000.93	-3.01%	+8.15%	EUR/USD	1.15	-0.37%	-2.45%
코스닥150	1,781.60	-2.94%	+15.14%	USD/CNH	6.78	+0.03%	-2.83%
S&P500	7,500.58	+1.08%	+9.57%	USD/JPY	161.38	+0.45%	+2.98%
NASDAQ	26,517.93	+1.91%	+14.09%	채권시장			
다우	51,564.70	+0.14%	+7.28%	국고채 3년	3.752	+5.2bp	+80.1bp
VIX	16.40	-11.06%	+9.7%	국고채 10년	4.119	+5.7bp	+73.4bp
러셀2000	2,979.77	+2.12%	+20.06%	미국 국채 2년	4.177	-0.8bp	+70.4bp
필라. 반도체	14,341.78	+6.42%	+102.48%	미국 국채 10년	4.453	-3.4bp	+28.6bp
다우 운송	21,637.89	+0.48%	+24.66%	미국 국채 30년	4.898	-3.4bp	+5.4bp
상해종합	4,090.48	-0.43%	+3.06%	독일 국채 10년	2.929	+0.2bp	+7.4bp
항생 H	7,976.04	-2.06%	-10.52%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77,409.98	+0.33%	-9.17%	WTI	76.60	-0.25%	+34.29%
유럽, ETFs				브렌트유	79.85	+0.38%	+31.22%
Eurostoxx50	6,323.27	+0.37%	+9.18%	금	4,245.90	-3.09%	-4.38%
MSCI 전세계 지수	1,127.60	+0.58%	+11.14%	은	66.32	-6.29%	-6.07%
MSCI DM 지수	4,805.51	-0.79%	+8.47%	구리	638.55	-1.66%	+12.38%
MSCI EM 지수	1,782.66	+0.41%	+26.94%	BDI	2,653.00	-0.64%	+41.34%
MSCI 한국 ETF	219.20	+6.89%	+125.47%	옥수수	444.00	-1.06%	-3.58%
디지털화폐				밀	614.00	-1.17%	+12.51%
비트코인	63,016.64	-2.1%	-28.1%	대두	1,142.75	-0.57%	+7.35%
이더리움	1,708.59	-2.12%	-42.62%	커피	267.80	-1.51%	-16.3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